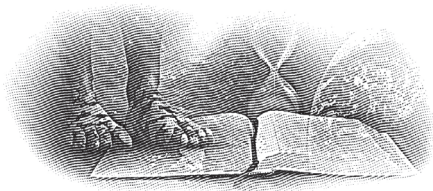


성경과 예언

TMI 실천해 보세요

58. 가난한 이웃에게 입을 만한 의복을 주세요.
62. 쇼핑카트를 제자리에 되돌려 놓으세요.
68. 상대가 좋아할 만한 책을 선물하세요.



- **연구 범위** 단 2:27~45, 요 14:29, 민 14:34, 단 7:1~25, 8:14, 고전 10:1~13
- **기억 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단 8:14).

성경의 예언은 우리의 정체와 사명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부여한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내적·외적 구조를 제공한다. 예수님은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요 14:29; 13:19 참고)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알려면 예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자들은 역사주의자들의 방법을 따랐다. 이것은 다니엘과 요한도 예언 해석의 열쇠로 사용했던 방법이다. 역사주의적인 방법은 예언을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끝나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역사의 성취로 본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역사주의적인 예언 해석의 원칙들을 공부하려고 한다. “우리는 역사에서 예언의 성취를 보고, 위대한 개혁 운동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役事)를 연구하며,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을 위하여 나라들이 집합하는 사건들의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교회증언 8권, 307).



※ 학습 목표

- ☑ **깨닫기** : 종말론적인 예언을 풀기 위해서 역사주의적인 해석법과 연일원칙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 ☑ **느끼기** : 이미 성취된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예언의 성취도 굳게 확신한다.
- ☑ **행하기** : 조사심판에 대한 예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을 위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TMI 안으로 안교소그룹이 함께 서로를 돌보고 연합함

1 서로 인사를 나누고
손님을 환영해 줍니다.

2 출석과 공부를 확인하고
안교헌금을 걷습니다.

3 결석자와 구도자에
대한 보고를 듣고
방문 계획을 세웁니다.

TMI 위로 안교소그룹이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감

- ① 2000년이 되면 세상에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에 그대는 어떻게 반응했었습니까?
- ② 그런 예언들이 빛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③ 우리가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을 해석할 때에 필요한 원칙은 무엇입니까?
- ④ 종말론적인 예언을 다룰 때에 꼭 역사주의적인 해석법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⑤ 민 14:34, 겔 4:6에서 제시하는 연일원칙이 다른 예언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 ⑥ 조사심판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해야 그것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결론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백성이 성취해야 할 목적을 밝혀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종말론적인 예언들은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긴 역사의 연속적인 성취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주의적인 접근법과 연일원칙을 적용해서 그 예언들을 해석해야 합니다.

TMI 밖으로 안교소그룹이 함께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봉사함

- ① '내가 실천한 TMI 활동 : ()'을 적고 함께 나눕니다.
- ② 우리 안교소그룹의 단합을 위해서 특별 모임을 계획합니다(6월 27일이나 28일).
- ③ 우리가 오늘 오후에 실천할 TMI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TMI(Total Member Involvement)는 전 교인이 '모두 참여 함께 나눔'의 정신으로 실천하는 '관계 중심 생활 진도' 운동입니다.

역사주의와 예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가 성경 예언을 연구할 때 적용하는 기본적인 방법론은 역사주의이다. 그것은 성경의 주요 예언들이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중단 없는 역사의 직선적인 흐름을 따른다는 사상이다. 그것은 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방법과 비슷하다. 우리가 이런 방식을 따르는 이유는 그것이 예언을 해석하는 성경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단 2:27~45을 읽어보라. 꿈의 내용 중 역사 속에서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는 패권의 이양을 암시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성경은 종말론적인 예언 해석법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금머리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그래서 다니엘은 첫째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단 2:38). 그런 다음 다니엘은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넷 같은 나라가 일어나”(단 2:39)며 그다음 “넷째 나라”(단 2:40)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의 모양이 암시 하듯이 각 나라들은 공백 없이 차례로 이어지며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발가락까지 전신의 일부로 상징되었다. 시간과 역사가 이어지듯이 그 나라들은 이어져있다.

다니엘 7장과 8장에서는 신상 대신에 특정 동물들이 사용되었는데 그것들이 가리키는 내용은 동일하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지상의 네 나라(8장에서는 세 나라)가 제시되었다. 그 나라들은 과거에서 출발하여 역사를 따라 현재를 지나서 미래로 나아가며,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

이렇게 다니엘 2장의 신상과 다니엘 7장과 8장의 연속적인 환상은 개신교의 역사주의적인 예언 해석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는 지금도 이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교훈

역사주의는 다니엘 2, 7, 8장처럼 예언의 성취가 역사를 따라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고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마친다는 견해이다.



묵상

요 14:29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언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다니엘의 예언들이 성취를 맞이했던 역사의 순간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디아-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을 때 다니엘의 예언을 주목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전율했을까요? 그런 일은 그리스와 로마가 차례로 세상을 제패했을 때도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작은 뿔의 활동이 멈춘 때에도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새끼 양같이 생긴 짐승이 세계를 지배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지금도 그 일은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요 14:29)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용

그대는 예언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주의적인 예언 해석법의 당위성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영감의 교훈



예언 연구 반대자들의 불합리성 - “예언들 특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연구를 반대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들이 너무 모호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언명한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아...지질학자들의 가설들은 열심히 받아들인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을 그처럼 이해하기 어려워하면서 그분께서 나타내지 않으신 가설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가!”(부조와 선지자, 113).

기도



아버지, 톨니바귀가 서로 완벽하게 맞물리듯이 역사를 통해 차례로 성취되는 예언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배워서 굳건한 믿음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네게 사십 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일 년이니라”(겔 4:6).

역사주의 해석의 열쇠 중 하나는 연일원칙이다.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이 이 원칙을 적용하여 다니엘과 계시록의 시간 예언을 해석했다. 그들은 몇 개의 성구와 예언의 문맥에서 이 원칙을 도출했다.

민 14:34과 겔 4:6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이 두 성경절에서 어떻게 연일원칙을 설명하시는가?

이 두 성경절에서 우리는 매우 선명하게 연일원칙을 보게 된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원칙을 단 7:25, 단 8:14, 계 11:2~3, 계 12:6, 14, 계 13:5과 같은 시간 예언을 해석하는 데 사용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위에서 언급하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들에는 연일원칙의 근거가 되는 세 가지 요소 즉 상징의 사용, 긴 기간 그리고 기이한 표현이 있다.

첫째, 나라들을 대표하는 맹수나 뿔들과 같은 상징들은 시간적인 표현들 역시 상징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맹수와 뿔들은 문자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대표하는 상징이다. 즉 예언을 전체적으로 문자가 아닌 상징으로 이해해야 한다면 왜 시간 예언만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당연히 그러서는 안 된다.

둘째, 예언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건들과 나라들은 수백 년의 기간에 걸쳐서 일어난다. 그래서 예언에서 제시된 시간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런 긴 기간이 주어질 수 없다. 반면 연일원칙이 적용되면 그 기간들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각 사건들과 맞아떨어진다. 시간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런 정확성을 보기 어렵다.

교훈

우리는 종말론적인 예언의 시간 요소를 해석할 때 예언의 상징성, 긴 기간의 필요성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 등을 근거로 연일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묵상 2,300주야와 70이레의 예언은 결국 메시아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어서) 끝으로 시기를 정하기 위해 사용된 기이한 표현들은 상징적인 해석을 내비친다. 다시 말해서 이 예언들 속에서 시간이 언급된 방식은 일반적으로 시간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방식들이 아니다(예, 단 8:14의 2,300주야). 이는 그 안에 묘사되어 있는 시간 요소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적용 연일원칙을 적용해서 2,300주야와 70이레의 예언을 해석할 때 언급해야 하는 사건들과 그 연대를 아래에 적어보십시오.

영감의 교훈



예언상의 연대들 - “시간에 대한 예언과 관련된 예언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연일(year-day) 원칙이다. 이 원칙하에서 예언적 시간의 하루는 역사적 시간의 일 년으로 간주된다”(각 시대의 대쟁투, 681).

기도



제한된 시간만 계수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해 그 긴 기간을 가능하고 조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잊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작은 뿔의 실체를 확인함

수백 년 동안 종교개혁자들은 다니엘 7~8장의 작은 뿔을 로마 교회로 인식했다. 그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단 7:1~25, 8:1~13을 읽어보라. 두 장에서 보이는 작은 뿔의 공통적인 특징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의 실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다니엘 7장과 8장의 작은 뿔 사이에는 7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1) 둘 다 하나의 뿔로 묘사되었다. (2) 둘 다 박해하는 세력이다(단 7:21, 25; 8:10, 24). (3) 둘 다 자기를 높이며 참람하다(단 7:8, 20, 25; 8:10~11, 25). (4)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단 7:25; 8:24). (5) 둘 다 그들의 활동에 시간적인 요소가 있다(단 7:25; 8:13~14). (6) 둘 다 종말의 때까지 존재한다(단 7:25~26; 8:17, 19). (7) 둘 다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멸망한다(단 7:11, 26; 8:25).

역사적으로 확인해 보면 첫째 나라는 바벨론이고(단 2:38), 둘째 나라는 메디아-페르시아이며(단 8:20), 셋째 나라는 그리스(단 8:21)이다. 그리고 역사는 이들 뒤에 등장하는 나라가 로마라고 분명하게 가리킨다.

다니엘 2장을 보면, 로마를 대표하는 철다리는 발로 이어지면서 진흙과 섞인다. 마지막 때까지 그런 상태가 유지된다.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작은 뿔은 넷째 짐승에게서 나오지만 그것의 일부로 남아있다.

어떤 세력이 로마로부터 나와서 1,260년 동안 정치적·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단 7:25 참고) 역사와 예언을 모두 충족시키는 세력은 단 하나 곧 교황권이다. 교황권은 10개의 게르만 부족 중 3개를 뿌리째 뽑고 그들을 장악했다(단 7:24). 교황권은 “먼저 있던 자들과”(단 7:24) 달랐는데, 이는 다른 부족과 비교했을 때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가리킨다. 교황권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단 7:25)한다.

교훈

로마를 상징하는 넷째 짐승에게서 나와서 분열된 유럽을 장악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지위를 차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작은 뿔은 교황권이다.



목상 다른 종교를 비방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는 시대이지만 우리가 작은 별의 정체 를 밝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역할을 가로채서 그 대신 교황을 앉힘으로써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단 8:11)한다. 교황권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단 7:25)고 반종교개혁 시기에 개신교도들을 학살함으로써 “그 군대와 별들 중의 몇을 땅에 떨어뜨”(단 8:10)릴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했다. 그것은 또한 십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을 제거하고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함으로써 “때와 법을 고치고자”(단 7:25)했다.

적용 그대는 현재 교황권의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설명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미국과 관련시켜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영감의 교훈



작은 별의 정체 - “짐승의 특징인 동시에 그 우상의 특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것이다. 다니엘은 작은 별 곧 법왕권에 대하여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단 7:25)라고 말한다. 바울은 그 동일한 세력을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자 한 ‘불법의 사람’이라고 불렀다(각 시대의 대쟁투, 446).

기도



아버지, 오늘날 교황권은 사람들에게 가장 믿을 수 있는, 권위 있는 종교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그들의 정체를 알고 거기서 빠져나와 남은 교회와 연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사심판

이번 주에 배운 예언의 윤곽은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 역사주의자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그러나 19세기 초 밀러주의 운동이 있을 때까지 2,300주야와 조사심판에 대한 진지한 연구는 없었다. 다음의 표를 보라.

| 다니엘 7장 | 다니엘 8장 |
|--------------|---------------------|
| 바벨론(사자) | — |
| 메디아-페르시아(곰) | 메디아-페르시아(양) |
| 그리스(표범) | 그리스(염소) |
| 이교 로마(넷째 짐승) | 이교 로마(수평적으로 확장하는 뿔) |
| 교황 로마(작은 뿔) | 교황 로마(수직적으로 확장하는 뿔) |

단 7:9~14과 8:14, 26을 읽어보라. 이 말씀에서 묘사하는 바에 따르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니엘 7~8장은 1798년에 나폴레옹의 장군 베르띠에르에 의해 교황이 체포되고 투옥됨으로써 끝났던 중세 박해 시대(계 13:3) 이후의 심판에 대해 언급한다. 그런데 그 심판은 하늘에서 진행된다. 하늘에서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퍼 놓”(단 7:10)이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단 7:13) 간다. 이것은 1798년 이후와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있는 심판의 장면이다.

다니엘 7장의 심판 장면은 단 8:14에 나오는 성소 정결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 둘은 같은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단 8:14에 따르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때는 2,300주야 이후이다. 연일원칙을 적용하면 이것은 2,300년을 의미한다.

단 9:24을 보면 70이레(490년)예언이 2,300주야 환상에서 잘랐기 때문에 2,300년의 기산점을 알 수 있다.

교훈

과거에는 하늘 성소 정결과 조사심판에 대한 예언이 조명을 받지 못했지만 재림운동으로 말미암아 2,300주야가 1844년에 마쳐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목상 하나님이 조사심판을 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단 8:14의 2,300주야 예언과 단 9:24~27의 70이레 예언을 한 예언의 두 부분으로 본다. 단 9:25은 그 기산점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알려준다. 이 일은 “아닥사스다 왕 제칠년”(스 7:7) 곧 기원전 457년에 일어났다. 그때로부터 2,300년을 계산하면 우리는 1844년에 이른다. 그 해는 1798년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라는 조건을 충족한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하늘 지성 소로 들어가셔서 성소 정결이라는 그분의 중보 사역을 시작하였다. 금요일 도표를 참고하라.

적용 교인 중에서 조사심판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대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



1844년에 시작된 조사 심판 - “1844년에 우리 대제 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조사 심판을 시작하셨다. 죽은 의인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그 일이 끝나면 살아있는 자를 위한 심판이 집행될 것이다. 이 엄숙한 순간이야말로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중대한가!”(가려 뽑은 기별 1권, 125).

기도



이 구원이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큰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주에 어떤 작은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통해 의를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론적인 예언 속 상징들은 하나의 의미만 성취한다. 예를 들어,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숫염소는 그리스라는 한 나라만을 상징한다(단 8:21). 본문 자체 또한 우리를 위해 직설적으로 그 이름을 알려준다. 이보다 더 분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표상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 사건 또는 구약의 제도들에 초점을 맞추며 미래의 더 큰 실체를 가리킨다. 표상학을 해석의 한 방법으로 사용했던 예는 예수님과 신약 성경의 기자들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심지어 구약 성경에도 나타난다. 무엇이 표상이고 원형인지를 인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성경의 기자가 그것을 인정했는지의 여부이다.

고전 10:1~13을 읽어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훈계하면서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을 언급했는가?

바울은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고대 히브리인들이 겪은 광야의 경험에 기초하여 하나의 표상을 발전시켰다. 바울의 기록에 따르면 모세에게 영감을 주어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를 “우리의 본보기”(고전 10:6)로 삼아 마지막 때를 살아갈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유혹을 견디라고 훈계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아래의 성경절들에서 예수님과 신약 기자들이 설명한 표상과 원형을 각각 적어보라.

마 12:40 -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

요 19:36 - 뼈가 꺾이지 않으리라는 말씀(시편 34:20),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음

요 3:14~15 - 모세가 광야에서 뿔뿔을 들어올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심

롬 5:14 - 범죄한 인류의 조상 아담, 구원받은 인류의 조상 예수님

요 1:29 - 죄를 짊어진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교훈

표상은 나중에 올 더 큰 의미의 실체(원형)를 가리키는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 또는 제도를 말하며 그 관련성은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만 확인해야 한다.



목상 구약 성소가 구원의 전체 계획을 어떻게 표상했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이어서) 각 경우에 예수님과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표상-원형의 해석법을 적용해서 예언적인 의미가 드러나게 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 또는 제도의 더 큰 성취를 가리켰다.

적용 사람들이 종종 표상-원형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들 중 성경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해석은 때로 얼마나 위험한니까?

영감의 교훈



구약의 표상들이 신약의 성취로 입증됨 - “구약 성경에 기록된 표상과 희생 제도와 예언들은 모두 장차 올 구주를 가리킨다.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와 편지서는 표상과 예언을 통하여 미리 알려준 그대로, 조금도 틀림없이 강림하신 구주를 증언하고 있다”(각 시대의 대쟁투, 267).

기도



아버지, 성경을 해석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자신뿐 아니라 남들까지 오류에 빠지게 하는 어리석은 교사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더 깊은 연구를 위해

2017년 사경회 교재 <오직 성경에 근거한 재림 신앙과 1844>를 다시 읽어보고, 아래
의 도표를 보라.

| 다니엘 7장 | 다니엘 8장 |
|--------------|---------------------|
| 바벨론(사자) | — |
| 메디아-페르시아(곰) | 메디아-페르시아(양) |
| 그리스(표범) | 그리스(염소) |
| 이교 로마(넷째 짐승) | 이교 로마(수평적으로 확장하는 뿔) |
| 교황 로마(작은 뿔) | 교황 로마(수직적으로 확장하는 뿔) |
| 하늘 심판 | 하늘 성소의 정결 |

여기서 우리는 1,260년의 박해 기간(단 7:25) 후에 일어나는 다니엘 7장의 심판 장면
이 단 8:14에서 말하는 하늘 성소 정결과 같은 사건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
면 하늘 심판은 타락한 지상의 역사 끝,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수립되기 이전에 있는
사건이다. 즉 우리는 단 8:14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것이 의미하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확실한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 확증할 수 있다.

핵심적인 토의를 위해

- 1 다니엘 2장을 다시 읽고 어떻게 역사주의적 방법인 방법이 나타나고 있는
지 보십시오.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수립에 이르기까
지 세상 제국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
언들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주의적 방법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드문 오늘날의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럼에도 역사주의적 방법이 제칠일안식일재림교회가 전하는 기
별의 적절성을 더 확고하게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 2 그대는 단 8:14에 나오는 2,300주야 예언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잘 이해하지 못
한다면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안교소그룹에서 그 지식을 나눠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대는
그 예언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얼마나 단단한 기초 위에 있는지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전도 셔츠(노르웨이)

글렌은 삼육학교의 교사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녹색 폴로 셔츠를 입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지하철을 탄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기를 바랐습니다. 마침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그의 셔츠를 응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왼쪽 가슴에 ‘재림 항공, 승무원 글렌’이라는 문구와 항공기 모양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5분 정도 후에 그 여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항공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어디로 비행하세요?”

“저희의 목적지는 한 곳뿐입니다.”

“항공료가 매우 비싼가요?”

“아뇨, 무료입니다.”

“뭐라구요? 왜죠?”

“2천 년 전에 비용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무엇인가 깨달았다는 눈치였다.

“알겠네요. 하지만 저는 천국을 믿기가 힘들어요.”

“왜요?”

“제가 자라면서 신앙에 대해 나쁜 경험을 했거든요.”

오늘날 기독교가 매우 쇠퇴한 노르웨이 사회에서는 과거에 믿음이 있었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재림교인이 약 4,500명에 불과합니다.

글렌은 그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연구하면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심과 질문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나눴고 목적지에 서 내렸습니다. 글렌은 그녀에게 인사하며 “저는 당신이 길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을 기억할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글렌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집집을 방문하여 초인종을 누르는 활동은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특별 제작한 티셔츠를 입고 지하철을 탑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재림교인으로 만드는 것은 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일입니다. 제 임무는 씨를 뿌리는 것이며, 수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제공 : 대총회 세계선교부